

‘고흥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토론회 열린다

오늘 국회의사당 도서관서
별교역~고흥읍~녹동항 연결
‘철도망 구축’ 주민 의지 표명
군 “다각적 노력 기울이겠다”

기존 전라선 철도에서 고흥 녹동항을 연결하는 고흥우주선 철도 건설의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고흥군은 별교역~고흥읍~녹동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를 20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도서관(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지난 4월12일 고흥군 문화회관, 5월24일 여수 엑스포 철도학회 학술대회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세번째로 마련됐으며, 문금주 국회의원, 고흥군,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임광균 교수가 ‘고흥 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한국철도학회장 사공명 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군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고흥 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 (국회) 토론회’ 통해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주민 의지를 표명해 철도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흥군 철도망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주민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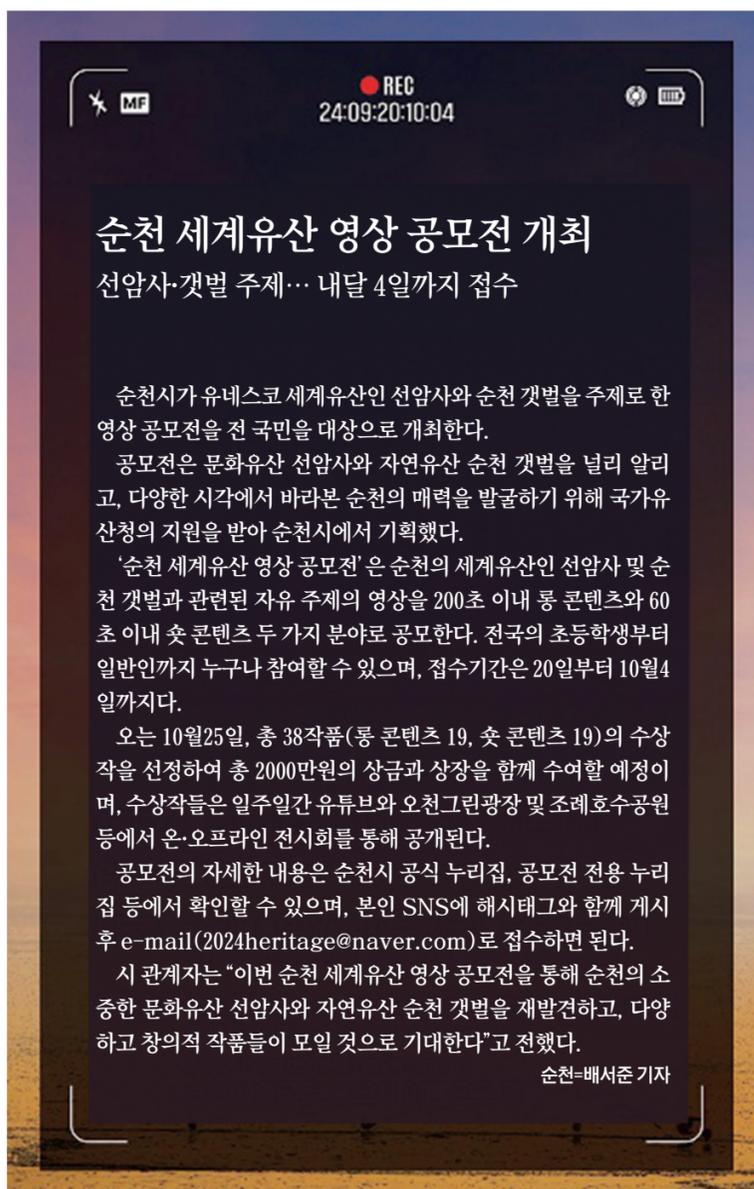
공영민 고흥군수는 “철도망 구축은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 산업이다. 이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되면 지역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우리군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철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

이어 “철도망이 구축되면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 관광산업 활성화 등 고흥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철도를 구축하는데 다양한 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여수시, 25일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8개 사업지구 추진 성과 발표 등

여수시가 오는 25일 여수문화홀에서 ‘2024 여수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연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통해 8개 도시재생 사업지구(광림·충무·종화·주삼·남산·문수·한려·국동)의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전시 및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여수문화홀 앞 주차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지구 주민협의체(조합)가 생산한 전통장류, 구운 갯 단풍쿠키, 초콜릿, 속밥알찰떡, 농산물꾸러미, 더치커피, 식혜, 장아찌, 비누 등 20여 종의 제품을 판매하는 베품시장(플리마켓)이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지구 주민

들이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직접 발표하며 공유하는 ‘우리마을 자랑대회’가 열리며, 심사를 통해 우수마을에 대해 여수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이후 사업지구 간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룰렛 게임, 도시재생 쿼즈 등을 운영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홍보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한마당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되고, 8개 사업지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이만큼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광양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차전지소재 일자리 인력양성 과정 취업아카데미 1·2기 통합 입학식을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이차전지소재 일자리 인력양성 과정’ 입학식

광양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차전지소재 일자리 인력양성 과정 취업아카데미 1·2기 통합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박희석 포스코리튬솔루션대표이사, 서성기 광양만권인력양성사업단 대표와 포스코 그룹사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1·2기 교육생의 입학 축하했다.

이차전지소재 일자리 인력양성 사업 과정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

로 협약기업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서류전형(1차), 필기시험(2차), 면접시험(3차)을 거쳐 최종 인력양성 과정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50명(1차 26명, 2차 24명)이다.

선발된 50명은 앞으로 3개월여에 걸쳐 직무기초, 이차전지 소재 공정 설계, PLC 및 자동제어, 생산설비 등 종합교육을 거쳐 포스코 그룹사에 취업 지원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이차전지 채용약정형 인력양성사업을 시작했으며, 작년에 교육 받은 100명 중 92명이 취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소재 풀밸류체인을 완성시킨 광양시는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교육받은 교육생 모두가 포스코 그룹사에 취업하고 광양시에 정착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척자로 합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추석 추모공원 ‘교통안내 봉사’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회원 10명이 추석연휴 추모공원 교통정리 자원봉사로 성묘객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순천시 제공

추석연휴, 순천시 모범운전자회(회장 문봉현) 회원 10명이 추모공원 교통정리 자원봉사로 성묘객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약 9000여 명의 성묘객이 방문한 가운데,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은 교통이 가장 혼잡한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올해 설 연휴 처음으로 시작된 모범운전자회 자원봉사는 명절이면 추모공원에서 청암대학교까지 차량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순천시에 직접 자원봉사를 요청해 시작했다.

문봉현 모범운전자회 회장은 “성묘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성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또한, 순천경찰서에서는 교통경찰 5명이 이날 오전 9시부터 공원묘지 입구 육천사거리에서 교통을 통제하여 성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했다.

한편, 추석 연휴 동안 공원묘지와 추모공원에는 총 3만여 명의 성묘객이 방문했다.

순천=배서준 기자